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신태수*

- I. 작품을 보는 눈
- II. 공간의 구성 원리
 - 1. 원심적 공간의 양상
 - 2. 원심적 공간과 인물의 관계
- III. 공간의 확장과 동아세아 공간
 - 1. 조선의 상대향으로서 동아세아 공간
 - 2. 선량한 심성과 자기 존재의 확인 장치
 - 3. 극의 장르성과 풍자성 인물
- IV. 『최척전』의 공간 서술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
- V. 결론

【요 약】

『최척전』의 공간은 여타 소설의 공간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한다. 특정 공간이 전란, 운명 등을 끌어들이며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공간과 연대하여 주인공을 누차 돌아다니게 만든다. 최척 부부가 돌아다닌 공간을 합쳐서 나타내면 조선, 일본, 안남, 중국, 호국으로 5국이나 된다. 5국의 공간은 순차적으로 위력이 강해진다. 조선보다는 중국이, 중국보다는 안남이, 안남보다는 호국이 더 위력이 강하다. 5국의 공간이 관계망을

* 경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형성하면서 최척 부부를 끝없이 밀어내고자 하므로, 『최척전』에는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적 공간이 떠밀어내자 최척 부부도 나름대로 저항하기는 하나, 원심적 공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최척전』이야말로 공간은 높이고 인물은 낮추는 특이한 구도로 사실성을 성취한 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른바 ‘고공간 저인물’ 현상이 17세기의 『위경천전』과 18~19세기의 『임경업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척전』은 횡으로 『위경천전』과 종으로 『임경업전』과 연관을 맺으면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소설사에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I. 작품을 보는 눈

17세기는 고소설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저층에 있던 자들이 경험을 술회하기 시작했고, 공간적 배경이 확대되거나 정확해지기 시작했고,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시작했다.¹⁾ 이런 변화는 이른바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 전란으로 인해 비롯되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전란이기도 했지만, 동아시아 3국의 전란이기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공함으로써 조일 전쟁이 일어났고,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군을 파병함으로써 동아시아 제국의 전란으로 확대되었다. 전란의 와중에서 민중의 참상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飢餓, 殺戮, 被虜, 流浪의 처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참상이 워낙 극진하고 절절해서 소설의 구성과 형상만 갖추어도 17세기 이전의 소설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었다.²⁾

1) 17세기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는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8~9쪽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2) 17세기 이전과 17세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鄭煥國, 「17세기 實記類와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 중에서 『최척전』은 사실성이 아주 강하다. 주인공 최척은 양반출신이면서도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다.³⁾ 재력도 없고 벼슬도 하지 못한 처지에서 여느 피난민 이상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낯설고 물 설은 타국을 두루 돌아다니다 年晩해서야 간신히 조선으로 생환했으나, 고초라도 그런 고초가 없다. 최척 본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최척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국제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화자는 삶의 질곡이 최척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란 때문임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⁴⁾ 인물은 자신 주변만을 바라보고, 화자는 인물과 역사적 공간의 관계를 먼 거리에서 조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인물과 화자의 시각이 다르다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인물의 시각과 화자의 시각을 구분해서 따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자들은 인물의 시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최척이 離散의 애환에 몸부림친다고 하는 논의가 이런 경향의 소산이다. 인물의 시각만을 주목하면 인물론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물론도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이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척전』의 한 축이 화자가 제시하는 공간임을 생각하면 공간론도 반드시 필요하

小説의 거리』, 『漢文學報』7, 우리한문학회, 2002, 123~124쪽에서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3) 梁承敏, 「<崔陟傳>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古小說研究』9, 韓國古小說學會, 2000, 95쪽 참조.

4) 『최척전』을 동아시아 전란과 관련시킨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희병, 「崔陟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閔泳大, 「崔陟傳」, 『朝鮮朝 寫實系小說研究』, 韓南大 出版部, 1991.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東岳語文論集』38, 東岳語文學會, 2001.

다. 화자는 공간 하나가 전란, 운명 등을 끌어들이며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공간과 연대하여 주인공을 돌아다니게 만든다고 한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인물이 공간을 떠나 논의될 수 없는 바이니, 공간론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된다.

공간과 공간이 연대해서 인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경우를 원심적 공간이라고 한다.⁵⁾ 원심적 공간에서는 공간 하나가 위력을 지닌다. 하나의 공간은 현실적 정황을 내세워 다른 공간과 연합하여 인물을 먼 곳으로 보내 버린다. 이른바 공간의 횡포에 대해서 인물의 반작용도 만만치 않으나 공간의 위력을 꺾기에는 힘에 부친다.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여러 공간 중에서 하나의 공간만 의미를 지니는 구심적 공간과는 사뭇 다르다. 원심적 공간이 구심적 공간과는 이처럼 다르다면, 공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도 구심적 공간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원심적 공간에서는 화자가 공간 전체를 두루 바라보아야 하므로, 화자의 시각은 구심적 시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으리라 예상된다.

원심적 공간은 『최척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주생전』, 『위경천전』, 『남윤전』, 『김영철전』, 『임경업전』, 『이태경전』에서도 나타나므로, 원심적 공간이 小說史에서 하나의 큰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하나같이 공간을 동아세아 제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2국 공간은 기본이고 4국 5국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4국이면 4국에 걸맞게 5국이면 5국에 걸맞게 각 공간이 나름대로 인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공간의 입장에서

5)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푸른사상, 2006, 291쪽에서 원심적 공간과 구심적 공간의 개념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도 인물을 바라본다는 입론이 가능해진다.⁶⁾ 공간이 어떻게 인물을 바라보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탐색하고, 화자의 측면에서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폭넓게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최척전』의 이본은 다수⁷⁾가 있지만, 필자는 선본이라고 생각되는 천리대본 『최척전』⁸⁾을 통해 바로 이런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공간의 구성 원리

1. 원심적 공간의 양상

『최척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유재란 이전, 정유재란 이후, 호족의 침입 이후가 그것이다. 세 부분에서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많이 다르다. 정유재란 이전은 전란이 발발하지 않았으므로 공간 이동의 폭이 좁고, 정유재란 이

-
- 6)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이라면 굳이 등장인물과 유별하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 등장인물이 움직인다면 공간 또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봄 직하다. 佛教 禪에서의 가르침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간은 비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고, 생명력과 생식력을 보유한다고 한다. 신비감과 생동감을 주는 동양의 산수화가 그런 정황을 잘 드러낸다. 이 점에서 유클리드식의 인식체계에 사로잡혀서 공간을 평평하며 모가 난 불모지라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문학 작품 속에 인물만 있고 공간은 없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레오나드 쉘레인, 김진엽 역, 『동양서양』, 『미술과 물리의 만남』, 국제, 1995. 207~208쪽 참조.
- 7) 권혁래, 「<최척전>의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18, 고전문학연구회, 2000, 서론에 따르면, 기준에 알려진 서울대본, 고려대본, 천리대본 이외에 한문본 세 종과 국문본 한 종이 더 있다고 한다.
- 8)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1999에 수록된 번역본에 의거한다. 31쪽의 논의에 의하면, 천리대본은 서울대본과 고려대본보다는 누락된 부분이 적고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한다.

후에는 부부가 각기 일본과 중국으로 나아가므로 공간 이동이 종과 횡으로 이루어지고, 호족의 침입 이후는 다시 만났던 부부가 각기 중국에 남거나 호국에 나아감으로써 공간 이동이 종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세 부분을 단위로 하여 공간 이동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공간과 거리가 먼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나타낸다.

■ 정유재란 이전

- 1) 최척은 양반 출신으로서 남원에서 살고 있다.
- 2) 최척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 성남에 사는 아버지의 친구인 정상사에게로 간다.
- 3) 최척은 정상사에게 의탁하고 있는 옥영과 우여곡절 끝에 혼사를 치르기로 결정한다.
- 4) 최척은 혼사를 앞두고 의병장 변사정에게 발탁되어 영남으로 가게 된다.
- 5) 최척이 오매불망 옥영을 그리워하자 변사정이 남원으로 돌아가게 한다.
- 6) 최척이 옥영과 결혼을 하고 아들 몽석을 얻는다.

■ 정유재란 이후

- 1) 전란이 발발하자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을 간다.
- 2) 연곡사를 벗어난 사이 왜적이 침입해서 가족들을 잡아가 버린다.
- 3) 여유문에게 간청하여 중국의 소흥부로 들어간다.
- 4) 옥영은 왜병 돈우를 따라 일본으로 가서 낭고사라는 곳에서 살게 된다.
- 5) 옥영은 돈우의 상선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
- 6)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명승지를 두루 유람한다.
- 7) 주우의 권고로 상선을 타고 차를 팔다 안남에 당도한다.
- 8) 안남에서 최척은 옥영을 만난다.
- 9) 최척 부부가 주우의 집에서 살면서 아들 몽선을 낳는다.
- 10) 몽선이 성장하자 최척 부부는 흥도를 머느리로 맞이 한다.

■ 호족의 침입 이후

- 1) 오랑캐 추장이 명나라를 침범하자 명나라 토벌군은 최척을 서기로 임명한다.
- 2) 우미새 전투에서 명나라 대패하고 최척은 포로가 된다.
- 3) 최척은 같은 곳에서 포로가 된 몽석을 만나 부자의 정을 확인한다.
- 4) 늙은 오랑캐의 도움을 받아 조선으로 돌아온다.
- 5) 옥영은 몽선 부부를 대동하고 우여곡절 끝에 조선의 순천에 당도한다.
- 6) 옥영과 몽선 부부가 남원에 도착함으로써 전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최척은 남원을 삶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출생도 남원에서 하고, 결혼도 남원에서 하고 자식도 남원에서 낳는다. 남원이 삶의 거점이니,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성남에 가긴 해도 오래지 않아 남원으로 돌아왔고, 변사정을 따라 영남으로 가긴 해도 역시 오래지 않아 남원으로 돌아왔다. 어딘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다. 성남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학식을 얻었고, 영남에서 돌아올 때는 옥영과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남원이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바꾸어준다고 할 수 있으니, 최척에게 있어서는 남원은 자기만의 영역 즉 소우주와 같은 공간이다.⁹⁾ 만약 남원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이다. 생명체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살기 어렵듯이, 최척이 남원을 벗어나서는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9) 최척과 옥영이 기를 쓰고 남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까닭이 남원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201쪽의 언급에서 보듯, 남원은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고, 꽃잎이 옷에 떨어져 향기를 내고, 밝은 달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피리를 불며 부부간의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니, 단순한 삶의 터전 이상이다. 이 점에서 남원의 상징적 의미를 ‘소우주’로 규정하더라도 무방하리라 본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사정은 달라진다. 난리를 피해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가족이 이산해야 했다. 부부의 이산은 특히 눈길을 끈다. 최척은 중국 소흥부로 들어가고 옥영은 일본 낭고사로 들어가니, 남쪽과 북쪽으로 완전히 엇갈린다. 극과 극은 서로 만난다. 옥영은 일본에서 더 멀리 나아가고 최척도 중국에서 더 멀리 나아갔으나, 기이하게도 두 사람은 안남에서 조우한다. 주우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만, 완전한 만남은 아니다. 남원의 경우처럼 최척만의 소우주를 이루기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남원의 경우와는 달리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주우의 집에 얹혀 지내니 자기만의 영역이 아니고, 큰 아들, 노부모, 장모가 조선에 있으니 이산의 아픔은 아물지 않는다, 새로운 가정 속에서 이산의 아픔을 되씹는다는 점에서 극과 극의 만남은 오히려 이산의 아픔을 배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심연의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집주인 주우와의 관계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세월은 이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흔적은 남기는 법이다. 대나무 밭에서 죽순이 돋아나듯, 최척과 옥영은 둘째 자식 몽선을 낳게 된다. 흥도를 떠느리로 맞이하고 나서부터는 가정의 모양새가 한결 번듯해진다. 아픔은 남아 있어도 삶이 새롭게 전기를 맞이할 즈음, 난데없이 호족이 명나라로 침입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무너진다. 전란의 여파는 최척의 가정으로 밀려들고, 최척은 뜻하지 않게 토벌군의 서기로 출전하기에 이른다. 옥영의 슬픔은 극에 달한다. 이산의 슬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산의 슬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옥영이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는 데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슬픔의 크기는 최척과 옥영이 다를 바 없지만, 곤액을 겪는 시간의 양은 서로 다르다. 최척은 우미새에서 오랑캐에게 사로잡히

게 되지만, 뜻밖에도 포로 가운데서 몽석을 만난다. 불운 가운데서 맛보는 행운이다.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늙은 오랑캐의 호의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행운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운이다. 행운이 겹쳐지면서 곤액은 급속도로 막을 내린다. 옥영은 이런 사정을 모른다. 최척이 생존했으리라는 믿음만 가지고 무리하게 조선으로 가려고 한다.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고 해적까지 만남으로써 최척이 겪은 곤액의 시간을 훨씬 넘어선다.¹⁰⁾ 우여곡절 끝에 옥영이 남원에 당도하면서 그토록 지루하던 곤액은 막을 내린다. 곤액의 끝은 곧 슬픔의 끝이다. 소우주인 남원에 당도했으니, 더 이상의 슬픔도 곤액도 없다. 곤액과 별도로 남아 있던 슬픔도 여기서 종결된다.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훑어보니, 한 마디로 『최척전』은 ‘원하지 않는 공간으로 나아가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동의 끝은 호국이다. 이동 과정에서 공간이 겹쳐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한다. 겹쳐지는 공간은 안남과 주우의 집이고, 어긋나는 공간은 중국 소흥부와 우미새와 포로들의 감방이다. 최척과 옥영이 부부이고 뜻이 같으므로 겹쳐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공유한다고 볼 때, 체험의 폭은 상당히 넓어진다. 크게 보아 조선, 일본, 안남, 중국, 호국으로 5국이나 된다. 이토록 체험의 폭이 넓은데도 원해서 나아간 곳은 없다. 영문도 모르는 사이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면서 최척 부부가 호국에까지 밀려났으니, 공간과 공간이 연대하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 원심적 공간이 최척 부부와 대응한다고 볼 때, 작품에는 분명히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0) 옥영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경우로는, 강진옥, 「최척전에 나타난 고난과 구원의 문제」, 『이화어문논집』8,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6, 235쪽과 민영대, 「최척전과 그 전후대에 나타난 소설과의 영향관계(1)」, 『한국언어문학』42, 한국언어문학회, 1999, 196~198쪽과 박희병, 앞의 글, 96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하는 곳에는 공간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다. 공간의 위력이란 ‘최척의 정체성에 어긋장을 놓는 정황’을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최척은 남원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므로, 남원에 있어야만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다. 남원에서 멀어지는 모든 경우가 정체성에 어긋장을 놓는 정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듭되는 공간은 전부 이런 정황을 내포한다. 정유왜란으로 인해 중국으로 갔고, 장사로 인해 안남으로 갔고, 새로운 가정으로 인해 다시 중국으로 갔고, 토벌군으로 인해 호국으로 갔다. 조선, 중국, 안남, 중국, 호국이라는 공간은 각기 정유왜란, 장사, 새로운 가정, 토벌군을 내세워 남원에서 자꾸만 멀어지도록 하므로, 공간이 저마다 최척의 정체성에 어긋장을 놓는 데 일익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척이 자꾸만 남원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위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간이 위력의 차이 없이 병렬되지만 하다면 최척이 남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으리라 예상된다. 공간의 위력은 최척을 어느 정도로 압박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공간은 압박의 강도가 약하므로 위력이 적고, 생명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간은 압박의 강도가 강하므로 위력이 크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은 위력이 가장 작은 공간이고 호국은 위력이 가장 큰 공간이다. 위력의 순서대로 공간이 배치된다면, 전체 공간은 일직선상에 놓이게 마련이다. 여기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공간의 위력을 따져서 일직선으로 배열하기’가 바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지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원심적 공간과 인물의 관계

원심적 공간에서는 공간이 바뀔수록 인물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많다. 일직선으로 배열된 공간 구성에서는 뒤에 놓인 공간일수록 위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속도를 빨리 하자면 최척과 옥영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분리될 때 각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터이고, 이 순간에 공간이 제 속도를 내기가 용이해지리라 본다. 공간의 의도대로 인물이 이끌려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도저히 만나지 못할 듯하던 최척과 옥영이 만났고 특정 공간에서는 십 년 이상을 머물렀으니, 인물이 원심적 공간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도 포착된다. 여기서 공간에 대한 인물의 본능적인 저항¹¹⁾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취할 수 있다. 인물의 저항이 어떤 국면으로 표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최척과 옥영이 안남에서 만났다는 점이다. 원심적 공간에 의거하면 양자는 만날 수가 없다. 최척은 중국으로 옥영은 일본으로 갔으므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양자를 분리시키고 각기 먼 곳으로 보내버려야 하는 원심적 공간으로서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그 이후 최척과 옥영이 안남으로 이동했다. 서로 흩어져 있다가 각기 안남에 당도했으니, 원심적 공간이 계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척은 옥영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피리소리를 내고 옥영은 최척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를 읊조림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했다면 양자가 아예 만나지 못했을 터이다. 절절한 사랑이 강고한 원심적 공간의 장벽에 구멍을 내면서 만남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척과 옥영이 주우의 집에서 십여 년을 기거했다는 점이다. 원심적 공간에 의거하면 한 곳에서 이토록 살 수가

11) 최척 부부가 공간의 특성을 헤아려서 대처한 것은 아니다. 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런 몸부림이 공간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능적인 저항이라고 지칭해 봄 직하다.

없다.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기 이전에 최척과 옥영을 분리시켜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함께 묶어서 험악한 공간으로 보내버리든지 해야 제격이다. 원심적 공간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최척 주변의 인물 때문이다. 주우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주우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오갈 데 없는 최척 부부를 감싸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 준다. 최척 부부가 주우와 인간애를 나누면서 남원과는 같지는 않았어도, 그나마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했다면 가정 꾸리기가 불가능했다고 볼 때, 인간애가 원심적 공간의 강고한 장벽에 구멍을 내면서 가정 꾸리기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최척과 몽석이 포로 신세로 수개월간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몹시 경계하다가 情誼를 느끼면서 부자간인 줄 알게 된다. 원심적 공간에 의거하면 서로 부자간인 줄 모르게 해야 할 터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미 두 차례나 구멍이 뚫려 간파 능력이나 추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태는 예기치 않은 데서 더욱 발전한다. 최척 부자의 통곡소리를 때마침 늙은 오랑캐가 듣는다. 늙은 오랑캐는 측은지심을 느끼고 최척 부자를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백방으로 배려해 준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했다면 절대로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돌아가도록 한다면 원심적 공간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세가 꺾인 원심적 공간은 더 이상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부자간의 연대와 늙은 오랑캐의 측은지심에 의해 큰 구멍이 뚫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니, 원심적 공간과 인물의 관계가 어떤지가 드러난다. 원심적 공간에 대한 인물의 저항은 허점을 찾아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구멍을 내는 수단은 남녀간의 절절한 사랑, 인간적인 정의,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

다. 이런 수단을 종합해 보면 인물과 인물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끈끈한 연대감이 조성되면서 그토록 강고 하던 원심적 공간도 결국 통로를 개방하고 말았다. 원심적 공간이 통로를 열었으니, 조선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어졌다.¹²⁾ 옥영의 경우는 복귀 과정에서 상당한 고난을 겪기도 했으나, 고난의 성격이 원심적 공간과는 연관이 없다. 중국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않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결국 인물과 인물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이 원심적 공간에 구멍을 내고 인물을 원위치로 복귀시킨 셈이 되었다.¹³⁾

III. 공간의 확장과 동아시아 공간

1. 조선의 상대항으로서 동아시아 공간

『최척전』에서는 조선, 일본, 중국, 안남, 호국이라는 다섯 나라가 나타난다. 이 다섯 나라를 한 단위로 묶는다면 무엇이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범위 안에 들어 있

12) 복귀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아주 짧다. 조선을 떠나 여러 공간을 떠돌아 다닌 햇수만 해도 무려 20년이나 되지만, 정작 복귀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며칠이다. 복귀의 짧은 시간 현상에 대해, 『최척전』이 ‘되돌아오기’가 아닌 ‘떠돌아다니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방증이라 해도 좋으리라 본다.

13) 원심적 공간이 통로를 개방했다고 해서 전란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해 인물과 인물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으로는 동아시아에 걸려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척 부부는 원심적 공간을 해체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구멍을 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통로가 열렸으니, 최척 부부가 지나가고 나면 그런 통로가 닫힐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어도,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동아시아이기도 하고 동아시아가 아니기도 한 셈이다. 『최척전』에서는 이 다섯 나라를 문화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을 뿐이고 지리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지는 않다. 작품의 형상화 방향에 따라 이 다섯 나라를 동아시아라 부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¹⁴⁾ 공간을 동아시아로까지 확장한다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므로, 화자는 불가피하게 의미 있는 공간을 선별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화자가 주목한 공간은 조선, 일본, 중국, 안남, 호국의 특정 지역이다. 특정 지역의 個數는 일정하지가 않다.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특정 지역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화자가 인물의 편력 공간을 일정하게 배분하지 않으므로, 장면에 따라 공간 서술의 방식이 일정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런 각도에서 『최척전』을 들여다보면 공간 서술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인물을 통해 공간을 서술하는 인물 추적 방식, 공간 술회의 형식으로 인물의 삶을 서술하는 공간 술회 방식, 양자를 절충해서 서술하는 절충적 방식이 그것이다. 공간 서술의 세 가지 방식은 곧 화자가 동아시아 제국의 형상을 표출하는 방식일 터이므로, 각 공간의 특징을 헤아려서 공간 서술의 방식을 점검하고 동아시아 제국의 형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조선의 공간으로는 네 곳이 화자의 관심사가 된다. 남원, 성남, 영남, 지리산 연곡사가 그것이다. 네 곳은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14)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다. 흔히 지리적 측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에다 러시아를 포함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빼고 동남아시아의 일부인 베트남을 포함시키곤 한다. 어떤 학자는 동아시아를 국가 단위로 설정할 때 범위 설정이 쉽지 않다고 하며, 관계와 교섭의 양상을 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하세봉,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만들기」, 『동아시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2001, 82~87쪽 참조.

주인공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다. 최척은 양반이기는 해도 현달하지 못한 인물이다. 현달을 꿈꾸므로 학문을 연마하려 갈 수밖에 없고, 의병으로 참여했으므로 전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병이 마을로 침입해 오므로 후미진 곳으로 피란을 갈 수밖에 없다. 애초에 관련이 없는 공간을 화자가 임의로 술회했으니 공간 술회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고, 최척으로 인해 네 공간이 전란 전후의 정황을 나타내는 도구로 묶여지므로 인물 추적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충적 방식은 공간의 전형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유용하다. 별 관련이 없는 공간을 표집한 다음 최척을 통해 긴밀한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전란 전후 기층민이 놓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간으로는 낭고사라는 곳만 화자의 관심사가 된다.¹⁵⁾ 낭고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낭고사의 ‘浪沽’가 바다와 관련이 있고 왜병 돈우가 상선을 타고 장사를 한다고 했으니, 낭고사란 해변 근처의 작은 마을이 아닌가 여겨진다. 화자는 자신이 낭고사라는 공간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화자는 돈우가 옥영에게 바깥출입을 엄하게 통제한다고 한다. 옥영이 종의 신분으로 집안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일본에 있기는 해도 여러 공간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 화자는 옥영이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낭고사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철저히 인물을 통해 공간을 서술하고자 하므로, 낭고사 서술은 이른바 인물 추적 방식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된다.

15) 작가 조위환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았기에 일본의 공간에 대한 서술이 소략하다고들 한다. 작품이 작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타당하나, 이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작가가 일본의 공간에 대해 적게 서술하기 위해 나름대로 특정한 서술 방식을 구사하게 마련이므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공간으로는 여러 곳이 화자의 관심사가 된다. 최척이 명승지를 유람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머느리까지 맞아들인 장면을 공간을 통해 서술하자니, 여러 공간에 고루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다. 화자는 인물의 추적 방식은 뒤로 미루고 중국 공간의 경계라든지 특색을 설명하는 술회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최척의 행적을 일일이 추적해서는 모두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배어 있다. 화자는 최척이 후견인 여유문의 사후에 명승지를 두루 유람했다고 하며, 龍門, 禹穴, 瀟湘江, 洞庭湖, 岳陽樓, 姑蘇臺를 예거했다.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승지가 최척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지니도록 했다는 점을 밝히려 했으리라 본다. 화자가 보여준 시선의 분산은 결국 여러 공간이 최척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술회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¹⁶⁾

안남과 호국의 공간으로는 한두 곳만 화자의 관심사가 된다. 관심사가 되는 공간은 전형성도 부족하고 위치도 불분명하다. 안남의 경우는 강 어구의 어디쯤이고, 호국의 경우는 중국 변방 우미새라는 곳과 위치가 모호한 오랑캐 추장의 집이다. 공간에 대한 정보가 소략한 현상은 화자가 공간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최척이 상선을 타고 아주 먼 곳으로 나갔다고 하기 위해서 안남이 필요했고, 최척이 호국에 포로로 잡혔다고 하기 위해서 오랑캐의 집이 필요했다고 보아야 한다. 화자가 최척의 처지를 나

16) 화자는 중국의 공간이 최척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최척이 주우의 집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렸다고 강조한 데서 이 점이 엿보인다. 남원에서 자식을 낳았고 여기서도 자식을 낳았으니, 주우의 집이 외관상 조선의 남원과 유사하다고 해도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 화자가 주우의 집이 있는 고장을 조선의 남원과 일치시키려 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최척이 주우의 집이 있는 고장을 제2의 남원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최척이 미련 없이 남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제2의 남원은 분명히 아니다. 최척의 삶이 화자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있다.

타내기 위해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니, 인물 추적 방식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 하에서는 공간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척이 안남에서 옥영을 만나고 호국에서 몽석을 만나면서 좌중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니, 인물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니, 동아시아 제국의 형상을 서술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일본, 안남, 호국의 경우에는 인물 추적 방식이 나타나고, 중국의 경우에는 공간 술회 방식이 나타나고, 조선의 경우에는 절충적 방식이 나타난다. 서술 방식에 따라 공간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이 이채롭다. 인물 추적 방식을 구사할 때는 인물과 대응되는 공간만 나타나고, 공간 술회 방식을 구사할 때는 인물과 대응되는 공간이 다수 나타나고, 절충적 방식을 구사할 때는 인물에 의해 유기성을 지니는 다수의 공간이 나타난다. 공간의 개수는 조선보다는 중국이 많고, 일본, 안남, 호국보다는 조선이 많다. 공간의 개수가 많은 쪽이 적은 쪽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때, 조선과 중국의 공간은 여타 공간보다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양한 서술 방식은 공간의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조선과 중국의 공간이 높은 비중을 지닌다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의 위상이 높으냐가 그것이다. 개수만 기준으로 하면 중국 쪽이 더 높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조선의 공간은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지만, 중국의 공간은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조선의 공간은 최척이 일정 기간 머물렀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곳인 데 반해, 중국의 공간은 주우의 집을 제외하고는 최척이 대부분 스쳐지나간 곳이다. 결국 조선의 공간은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공간보다 위상이 낮지만,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공간보다 위상이 높은 셈이 된다. 최척이 주인공임을 감

안할 때, 주인공과 직결되는 질적인 측면이 당연히 우위에 선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공간이 중국의 공간보다 더 위상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세아 제국 가운데서 조선의 위상이 가장 높다고 하는 시각은 의미심장하다. 최척 부부에게 있어서 조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동아세아 제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최척 부부를 형상화했음을 감안하면, 조선이 최고의 위상을 지닌다는 설정은 정체성 내지는 주체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체성 내지는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중국이다. 화자는 최척이 중국에서 오래 기거하면서도 떠나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화자가 정체성 내지는 주체성과 접맥되지 않았다면 최척이 중국에서 눌러앉고 싶은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을 터이다. 이렇게 볼 때, 화자는 정체성 내지는 주체성에 입각해서 조선의 위상을 점검하고, 조선이 동아세아 제국과 상대항이 되도록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2. 선량한 심성과 자기 존재의 확인 장치

최척과 옥영은 동아세아 제국의 공간에서 상당한 적응력을 보여 준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의거하면 적응력은 생각하기 어렵다. 공간과 공간이 연대해서 인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내모는 방식이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최척과 옥영이 공포감만을 가져야 제격이다. 바꾸어 말하면 최척과 옥영이 획득한 적응력은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지닌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최척과 옥영이 적응력을 지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공포감만 지녀야 할 공간에서 의외로 적응력을 발휘하는 셈이니,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로 보아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인간 존재의

위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점을 다지려면 적응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척 부부는 동아시아 제국의 공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 최척의 경우는 장사하러 다니기도 하고, 명승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오랑캐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귀국 도중에 중병을 앓기도 한다. 옥영의 경우도 최척의 경험에 그리 뒤지지 않는다. 피로인이 되기도 하고, 장사를 다니기도 하고, 귀국 도중에 혹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 최척 부부가 너무나 고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만큼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은 법인데, 최척 부부가 바로 그러하다. 보고 느낀 바를 한 마디로 말하면 발견과 깨달음이다. 이런 발견과 깨달음이 최척과 옥영으로 하여금 적응력을 가지도록 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 제국의 공간에서 발견한 바로는 ‘선량한 심성’을 들 수 있다. 최척 부부는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난다. 옥영을 자식처럼 돌봐준 돈우, 옥영이 피로생활을 못 이겨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구출해 준 주변사람들, 옥영이 해상에서 죽기만을 기다릴 때 구출해 준 조선의 뱃사람들, 오갈 데 없는 최척을 명나라로 데리고 간 여유문, 최척에게 장사를 하게 하고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준 주우, 최척과 몽석이 조선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준 어떤 늙은 오랑캐, 병으로 죽어가는 최척을 치료해 준 중국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최척과 옥영이 만난 자들 중에는 적국인도 있지만, 국적을 따지지 않고 곤액에 빠진 최척 부부를 성심으로 도와준다. 선량한 심성의 수혜자가 바로 최척 부부이니, 최척 부부야말로 다른 어떤 조건보다 선량한 마음이 우위에 선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선량한 심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살벌한 분위기를 완화

시키고 흠어진 사람들을 모으는다는 점에서 최척 부부의 발견 범위는 선량한 심성의 기능까지라고 할 수 있다. 돈우와 침술인은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돈우가 안남에서 옥영을 최척에게 돌려보내자, 이웃 상인들이 몰려들어 선물을 주며 축복해 준다. 돈우의 따뜻한 심성이 각가지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이국의 생경한 공간을 잔치판의 분위기로 변모시켰다. 한편 침술인이 최척을 소생시키자, 몽석은 침술인을 국내로 불러들여 함께 사는 계기를 마련한다. 침술인의 따뜻한 심성이 가족관계를 자극함으로써 전란의 상흔을 화합의 환희로 변모시켰다. 두 사례의 주인공은 최척 부부이다. 선량한 심성의 기능이 최척 부부에게 작용했으니, 최척 부부야말로 선량한 심성의 기능을 누구보다 잘 확인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제국의 공간으로부터 깨달은 바로는 ‘세계에 대한 자기 존재의 비중’을 들 수 있다. 최척 부부는 험란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가족의 재결합이 가능하다고 깨닫는다. 최척이 몽석과 함께 조선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옥영이 몽선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선으로 항해를 고집한 점은 그 좋은 사례이다. 조선으로의 탈출에 목숨을 걸었다고 볼 때, 최척과 옥영은 개인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척 부부가 처음부터 가족을 더 중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무작정 중국으로 들어갈 때나 옥영이 일본에서 자결하려고 할 때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고 보니, 자기 존재의 비중은 저절로 설정되지 않았다. 최척 부부가 가족의 좌표 위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세계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기에 가능했다.¹⁷⁾

여타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세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

17)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韓國古典研究』6, 韓國古典研究學會, 2000, 186쪽에서도 이런 논의를 펼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존재의 비중을 설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끝내 세계의 정체를 모를 때는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해야 귀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계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면 외부 힘이라도 입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장육존불은 의미심장하다. 최척과 옥영이 세계의 정체를 알지 못할 때, 장육존불이 나타나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최척과 옥영은 장육존불의 계시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믿고, 이를 토대로 세계에 대한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한다. 장육존불은 꿈에만 나타나고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神佛이다. 이런 신불에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최척과 옥영이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

발견과 깨달음이 동아세아 제국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척과 옥영이 발견하고 깨달은 내용으로는 동아세아 제국에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량한 심성을 발견하고 세계에 대한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발견과 깨달음은 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척과 옥영이 문제에 비해 목표를 너무 좁고 작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좁고 작은 목표가 곧 최척과 옥영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동아세아라는 역사적 공간 위에 일개 기층민이 설정할 수 있는 좌표가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최척과 옥영이 나름대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IV. 『최척전』의 공간 서술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는 인물보다 공간에 주안점을 둔다. ‘공간의 위력을 따져서 일직선으로 배열하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간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려면 공간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어야 하고 공간과 공간 사이의 等差가 인물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인물은 공간이나 화자와 동일한 작품 내적 장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작가가 설정한 공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최척과 옥영이 다양한 공간 편력을 운명으로 여긴 까닭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최척전』을 보는 관점은 ‘인물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공간이 인물에게 무엇을 하며 인물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 통로가 확보되리라 본다.

공간이 원심적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하나의 공간이 연대하여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내므로, 공간은 여럿이면서 하나이다. 여럿이면서 하나인 공간은 다름 아닌 동아세아 제국의 공간이다. 결국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동아세아 제국의 공간을 하나로 결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공간과 공간이 연대하여 인물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물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물이 세계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기 존재의 비중을 높여나가려면 인물과 대응되는 공간도 이전의 공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인물을 응시한다고 할 때, 공간을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다.¹⁸⁾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공간에

18) 서양의 관점에서는 공간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기 어렵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공간이 살아 움직인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인도 승려인 바수반드가 저술한 <俱舍論>에서는 ‘一切有情’이라고 하며 만물에 생명이 있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살아 있다는 지적이 비로소 가능하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는 이른 시기의 서사물에서도 나타난다. 『삼국유사』 소재 <조신전>은 원심적 공간의 구성원리를 본격적으로 담은 최초의 작품이다. <조신전>의 조신은 꿈속에서 평상시에 사모하던 김흔의 딸과 결합한다. 조신은 승려이고 김흔의 딸은 유부녀인지라 누가 보더라도 불륜관계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너무나 궁핍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걸식한다. 돌아다니는 햇수만도 무려 십 년이나 된다. 명주 해현령을 지날 때 큰 아이가 굶어 죽자, 우곡현으로 이주하기에 이른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니, 조신과 김흔의 딸이 돌아다니는 공간은 상당히 많다. 돌아다니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녀야 하므로, 공간이 인물을 떠밀어낸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최척전』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조신전>에서는 인물이 공간에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데 반해, 『최척전』에서는 인물이 공간에 떠밀리기만 하지 않는다. 『최척전』의 인물은 몸부림을 치며 원심적 공간에 구멍을 내지만, <조신전>의 인물은 몸부림을 치지 못한다. 몸부림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간의 위력이 강하다는 데서 찾기는 어렵다. 공간의 위력이 『최척전』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화자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원래부터 인물이 저항하지 않았다고보다 화자가 인물의 저항 양

고, 생명 있는 존재는 모두 정신 작용을 한다고 한다. 공간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공간이 정신 작용까지 한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구사론>에 대해서는 조수동, 「불교 생명사상에 관한 한 고찰」, 『철학논총』18, 대한철학회, 1999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상을 주목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대한 화자의 이해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인물을 떠밀어내는 양상만을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로 여긴 까닭이다.

17세기 소설의 화자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물이 공간에 떠밀려가는 양상뿐만 아니라 인물이 공간에 저항하는 양상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생전』과 『위경천전』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주생전』의 주생은 전당인으로 선화를 만나 가연을 맺는다. 상황이 나빠져서 호주로 옮겨갔으나 선화를 잊지 못한다. 선화와 결혼에 합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조선에 출전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한편 『위경천전』의 위생은 금릉인으로 악주에서 소숙방을 만난다. 소숙방과 결혼 단계에 이르렀을 때, 조선에 출전하게 된다. 크게 상심한 위생은 죽고 만다. 죽은 뒤 부친에게 현몽하여, 자신의 상여를 소숙방이 있는 악주를 거쳐가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다. 두 작품 모두에서 인물이 공간에 떠밀려 가면서도 공간에 저항하는데, 그 강도가 만만치 않다. <조신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

인물이 공간에 저항한다고 보는 근거는 인물이 특정 공간을 벗어나고도 마음으로는 그 이전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생전』에서는 주생이 호주로 갔으면서도 그 이전의 공간에 있는 선화를 잊지 못한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의거하면 주생을 선화와 분리시킨 다음 먼 곳으로 보내야 할 터인데, 주생의 연정 때문에 불가능해진다. 한편 『위경천전』에서는 위생이 악주를 벗어났으면서도 소숙방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 죽음으로 인해 둘이 완전히 분리되었으니,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위생은 죽어서 그 이전의 공간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통제하는 범위를 넘어섰다. 위생의 연정이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구멍을 낸 셈이니, 『주생전』의 주생 이상으로 저항의 정도가 강렬하다.¹⁹⁾

『최척전』이 17세기 작품임을 고려하면, 동일한 시대의 『주생전』과 『위경천전』에 나타난 변화는 예사롭지 않다. 이 세 작품은 불가항력적인 전란을 축으로 해서, 연인과의 이산, 낯선 공간의 거듭되는 이동 양상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런 공통점은 세 작품의 작가가 동아세아 전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을 나타낸다. <조신전>의 경우에 비하면 작가의 경험이 한층 확대된 바이므로, 예전의 방식으로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모두 담을 수 없다. 만약 <조신전>과 같이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반쪽짜리로 운용하면 공간이 인물에 미치는 영향만 나타나고 인물의 몸부림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인물의 몸부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물이 공간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필요성이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작품에 형상화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조신전>의 경우와 다르다면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시대적 배경,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위력이나 인물의 저항력이 달라질 터이므로, 공간이나 인물을 낱알이 떼어놓고서는 견주기가 쉽지 않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서는 공간이 인물을 떠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할 때, 세 작품을 동일선상에서 견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떠밀어내기에 대한 저항하기의 강도를 헤아리기만 하면 작품 간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항하기의 강도로는 저항하기가 강력한 경우와 저항하기가 미약한 경우를 떠올려 볼

19) 『주생전』과 『위경천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鄭炳浩, 「<周生傳>과 <韋敬天傳>의 比較 考察」, 『古小說研究』6, 韓國古小說學會, 1998, 305~324쪽을 참조할 만하다.

수 있다. 자력으로 원하는 곳으로 귀환하는 『최척전』과 『위경천전』은 전자에 해당되고, 아예 귀환하지 못하는 『주생전』은 후자에 해당된다.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이 세 작품만이 아니다. 『남윤전』, 『김영철전』, 『임경업전』, 『이태경전』 또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남윤전』에서는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중국으로 탈출한 뒤에 천자의 배려로 귀국한 남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김영철전』에서는 후금에서 탈출한 뒤에 다시 청나라로 붙잡혀 갔다가 전란이 끝난 뒤 귀국하는 김영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임경업전』에서는 호국으로 잡혀갔다가 당당한 기세로 호왕을 감복시켜 귀국한 임경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태경전』에서는 명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가달국으로 넘겨졌으나 명나라 한 소저의 배려로 귀국한 이태경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 주인공 가운데 자력으로 원심적 공간을 돌파한 경우는 임경업뿐이고, 그 이외에는 타인의 배려나 행운에 의해 귀국한다.

■ 17세기 이후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과 공간의 관계

A : 공간에 대한 인물의 저항이 미약한 작품 -- 『주생전』, 『남윤전』, 『김영철전』, 『이태경전』

B : 공간에 대한 인물의 저항이 강력한 작품 -- 『최척전』, 『위경천전』, 『임경업전』

17세기 이후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니, A와 B라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A는 주인공에 대한 공간의 위력을 확인한 작품이다. 주인공이 원위치로 돌아오기는 해도 인물이 공간의 위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아니다. 『주생전』에서는 공간의 기세가 여전히 등등해서 주인공이 귀환하지 못하고,²⁰⁾ 『남

20) 주인공의 귀환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마무리가 덜 된 듯한 인상

운전』과 『이태경전』에서는 타인의 배려가 원심적 공간에 구멍을 내면서 귀환이 이루어지고, 『김영철전』에서는 공간과 주인공이 엮치락뒤치락하다 다른 원인 즉 전쟁의 소멸로 인해 주인공이 귀환한다. 한편 B는 공간에 대한 인물의 저항을 확인한 작품이다. 『최척전』에서는 가족이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위경천전』에서는 연인과의 결합이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임경업전』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이라는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귀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A와 B가 이처럼 다르니, 현실 반영의 정도도 다르게 마련이다. A에서는 공간과 인물 사이에 외부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B에서는 공간과 인물 사이에 외부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외부 조건이 인물의 할 일을 대신 해 버린다고 볼 때, 외부 조건이 개입하지 않는 B쪽이 외부 조건이 개입하는 A쪽보다 사실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성을 확보하는 데 초월적 존재가 지장을 초래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초월적 존재가 실제로 등장해서 인물이나 사건을 앞질러 갈 경우에는 사실성이 약화되지만, 초월적 존재가 관념 속에서만 내재하거나 실제로 등장하더라도 인물이나 사건과 보조를 맞출 경우에는 사실성이 약화되지 않는다.²¹⁾ 이 점에서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

을 주는 작품이다. 내용이 덧붙어서 주인공의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의 노력과는 별 관련이 없으리라 예측된다. 주인공이 공간에 일방적으로 떠밀려 갈 뿐이고, 저항의 몸부림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 21) 장육존불의 존재를 놓고 사실주의의 구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논자도 있다. 필자의 관건으로는 장육존불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초월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육존불의 등장이 문제가 될 수 없고 작품 내적 기능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육존불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쟁 양상은 申海鎭, 「최척전에서의 ‘장육불’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35, 민족어문학회, 1996, 362~36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천전』과 『임경업전』이 『최척전』보다 사실성이 더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최척전』이 사실성을 성취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초월적 존재인 장육존불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된다. 장육존불은 주인공이 위기에 빠질 때 꿈에서만 나타난다. 화자를 운용하는 주체가 작가임을 감안할 때, 작가가 화자를 통제하며 형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장육존불이 제한적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형상의 목표란 ‘원심적 공간에 대한 인물의 강력한 저항’이다. 원심적 공간에서는 공간의 위력이 더 커지면 인물의 저항력도 더 커진다. 저항력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초월적 존재라도 이입시켜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이 점에서 장육존불은 인물의 저항력을 높이는 구실만을 수행한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작가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고도 실제로 등장시키지는 않은 셈이니,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창작방법을 구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척전』은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정면에서 다룬 소설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받아들이되 공간에 대한 인물의 저항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록 인물의 저항력이 방어적 본능의 차원에서 형성되기는 했어도, 그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원심적 공간이 삶을 송두리째 뺏아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사실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결국 『최척전』은 공간은 높이고 인물은 낮추는 특이한 구도로 사실성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고공간 저인물’ 현상이 17세기의 『위경천전』과 18~19세기의 『임경업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척전』의 의의는 더욱 커진다. 횡으로는 『위경천전』과 종으로는 『임경업전』과 연관을 맺으면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소설 사에 뚜렷이 각인시켰다는 점이 빼놓을 수 없는 의의가 된다.

V. 결론

지금까지 『최척전』에 대한 연구는 인물론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인물론도 필요하기는 하나, 이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주인공이 이동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떠밀려 이동한다는 점이 인물론에 한정될 수 없는 이유이다. 공간과 공간이 연대해서 인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경우를 원심적 공간이라 할 때, 『최척전』은 결국 원심적 공간과 인물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척 부부가 돌아다니던 공간을 합쳐서 나타내면 조선, 일본, 안남, 중국, 호국으로 5국이나 된다. 5국의 공간은 순차적으로 위력이 강해진다. 최척에 맞추어 정리해 보면 조선보다는 중국이, 중국보다는 안남이, 안남보다는 호국이 더 위력이 강하다. 원심적 공간이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최척 부부를 끝없이 밀어내고자 하므로, 『최척전』에는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적 공간이 인물을 떠밀어낸다고 해서 인물이 일방적으로 떠밀려가지는 않는다. 인물은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원심적 공간에 저항한다. 구멍을 내는 수단은 남녀간의 절절한 사랑, 인간적인 정의,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다. 이런 수단을 종합해보면 인물과 인물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연대감이 조성되면서 그토록 강고하던 원심적 공간도 결국 통로를 개방하고 말았다.

원심적 공간에 구멍을 내는 주체가 최척 부부이므로, 그 둘의 인식과 행위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최척 부부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한 가지는 조선을 동아시아 제국에서 위상이 가장 높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풍광이 수려하고 인심이 돈후한 중국을 벗어나 조선에 귀국하려고 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다른 한 가지는 ‘세계에 대한 자기 존재의 비중’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좌표 위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인식과 행위가 동아세아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전란을 종식시킬 만한 방안도 찾았을 법하나, 그렇지 않다. 최척과 옥영으로는 동아세아 제국에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최척 부부가 귀국했다 해서 전란이 끝난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원심적 공간은 동아세아 전란으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최척 부부의 노력으로 허물어지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척 부부는 원심적 공간을 해체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구멍을 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통로가 열렸으니, 최척 부부가 지나가고 나면 그런 통로가 단힐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최척전』은 공간은 높이고 인물은 낮추는 특이한 구도로 사실성을 성취한 작품이다. 예로부터 내려는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수용하되 공간의 위력은 크게 하고 인물의 저항력을 적지만 치열하게 설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고공간 저인물’ 현상이 17세기의 『위경천전』과 18~19세기의 『임경업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척전』은 횡으로는 『위경천전』과 종으로는 『임경업전』과 연관을 맺으면서 원심적 공간의 구성 원리를 소설사에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원심적 공간, 최척 부부, 인물의 따뜻한 마음씨, 동아세아 제국, 사실성

참고문헌

-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東岳語文論集』 38, 東岳語文學會, 2001.
- 강진옥, 「최척전에 나타난 고난과 구원의 문제」, 『이화여대 한국어문학회』8, 이화여대 한국어문학회연구소, 1986: 235쪽.
- 권혁래, 「<최척전>의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18, 고전문학연구회, 2000.
-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韓國古典研究』6, 韓國古典研究學會, 2000: 186쪽.
- 閔泳大, 「崔陟傳」, 『朝鮮朝 寫實系小說研究』, 韓南大 出版部, 1991.
- , 「최척전과 그 전후대에 나타난 소설과의 영향관계(1)」, 『한국언어문학』42, 한국언어문학회, 1999: 196~198쪽.
- 朴逸勇,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崔陟傳』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古典文學研究』5,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90.
- 박희병, 「崔陟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푸른사상, 2006: 291쪽.
- 申海鎭, 「최척전에서의 ‘장육불’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35, 민족어문학회, 1996: 362~369쪽.
- 梁承敏, 「崔陟傳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古小說研究』9, 韓國古小說學會, 2000: 95쪽.
-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199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8~9쪽.
- 조수동, 「불교 생명사상에 관한 한 고찰」, 『철학논총』18, 새한철학회, 1999.
- 鄭炳浩, 「<周生傳>과 <韋敬天傳>의 比較 考察」, 『古小說研究』6, 韓國古小說學會, 1998: 305~324쪽.
- 鄭煥國, 「17세기 實記類와 小說의 거리」, 『漢文學報』7, 우리한문학회, 2002: 123~124쪽.
- 하세봉,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만들기」, 『동아세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2001: 82~87쪽.

레오나드 쉴레인, 김진엽 역, 「동양/서양」, 『미술과 물리의 만남』,
국제, 1995: 207~208쪽.

Centrifugal Circumstance and East-Asian countries in
“Story of Choi Cheok”

Shin, Tae-Soo

Characters were thrust in certain direction by circumstances jointed mutually, in “Story of Choi Cheok”. Writer set up these circumstances as ‘centrifugal circumstance’ system, and narrated his writing on basis of this system. Debat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hoi Cheok and his wife traveled five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was Chosun), Japan, Vietnam (which was Annam), and China (which included both Ming and Ching). As circumstances in the centrifugal system tried to thrust Choi Cheok and his wife continuously forming relation network, construction principle of centrifugal system could be thought to act in “Story of Choi Cheok”.

Second, characters fought back against the system with method of puncturing the system. Method of puncturing was the ‘warm hearts’ of characters and their cumulative ‘warm hearts’ made the ‘harsh and stubborn circumstances’ open channels-between finally.

Third, puncturing the system was not accomplished automatically. Choi Cheok and his wife recognized Chosun to be the most important country among East-Asian countries and this was possible with setup of ‘importance of self-existence’ in the world.

Forth, “Story of Choi Cheok” achieved reality with special structure plot of taking ‘circumstances’ as high and ‘characters’ as low. Though conventional construction principle of centrifugal circumstance was adopted, excellence of the writing could be obtained by the fact that struggles of characters were weak but very fierce, while effectiveness of circumstances was powerful.

Key words : centrifugal circumstance, 최척 부부(Choi Cheok and his wife),

인물의 따뜻한 마음씨('warm hearts' of characters),

동아세아 제국(East-Asian countries), 사실성(reality)

신태수

경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소: 701-751 대구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1차 110동 603호

전화번호: (연구실) 053-850-7422 (휴대폰) 019-515-8879

전자우편: sandang@paran.com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